

EAI 여론분석센터

작 성 자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이 메모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 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0-78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동아시아연구원

© EAI 2012

www.eai.or.kr

18대 대선, 초박빙 구도의 원인과 전망

본 보고서의 자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준수를 위해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2012 대선패널 4차 조사”의 결과자료(참여 패널 1,412명) 중 11일과 12일의 결과자료(참여 패널 1,308명)만을 사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최종 조사결과는 본 보고서의 조사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알 수 없는 선거

각 후보 진영의 승리 장담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의 판세가 여전히 유동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일주일 전 실시한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대선패널조사(18대 대선 KEPS)에서 선거 결과는 끝까지 가 봐야 안다는 응답이 76.4%, 박 후보로든 문 후보로든 승부가 결정되었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2007년 선거 일주일 전 실시간 패널조사에서는 이미 50.2%가 누가 당선될 지 결정되었다고 답한 것과 크게 대조되는 결과이다. 각 후보 지지율이 40%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각 후보 지지율이 사실상 차이가 없는 초박빙 구도 하에서 지지층에서조차 승부를 장담 못하는 상황임을 유권자들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그림1).

2주 사이 표의 이동 : 13.2% 표심 이동, 안철수 지지로 문재인 추격

안철수 후보 사퇴직후인 11월 25-27일 실시된 제3차 대선패널조사에서 박근혜 후보 대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45.0%대 43.2%로 박 후보가 우세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는 0.8%p 상승한 45.8%, 문재인 후보는 2.8%p 상승한 46.0%로 사실상 동률을 기록한 셈이다.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1월, 12월 두 조사에 모두 참여한 1,183명의 응답을 보면 이중 13.2%가 지지후

보를 교체하거나 미결정층으로 변화하였다.

11월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자의 94.0%, 문재인 후보 지지자의 93.4%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후보가 바뀌거나 미결정층으로 바뀐 규모는 13.2%(155명)이었다. 표심이 이동한 부동층 중 11월 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자중 이탈자(32명)와 문재인 후보 지지자 중 이탈자(33명)는 거의 상쇄된 반면, 11월 미결정층 중 이번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와 문재인 후보 지지로 흡수된 비율은 각각 25명(전체응답자의 2.1%), 50명(전체응답자의 4.2%)로 문재인 후보가 득을 봤다. 군소후보 지지층에서도 박근혜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그림2).

안철수 지원활동 : 안철수 부동층 6.0% 중 절반인 3.2% 문 지지로 이동

미결정층 부동층의 상당수가 안철수 후보 사퇴이후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들 미결정부동층에서 문 후보지지가 높아진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원효과 덕으로 보인다. 10월 제2차 패널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312명(전체 응답자의 27.9%) 중 안철수 전 후보의 사퇴직후인 제3차 조사에서 195명(62.5%)이 문재인 후보로 흡수되었고 50명(16.0%)이 박근혜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 나머지 67명(21.5%)이 부동층으로 이탈한 바 있다.

그러나 안철수 전 후보가 본격적으로 지원유세를 시작한 이후 실시한 12월 11-12일 선거일주일 전 조사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를 지원하다 부동층으로 돌아섰던 소위 ‘안철수 부동층’ 67명 중 36명(53.7%)이 다시 문재인 후보 지지로 복귀했다. 전체 유권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환산해보면 보면 이들 안철수 전 후보 부동층을 6.0%(67명) 중 그 중 3.2%(36명)의 복귀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지난 조사에서 안철수 전 후보를 지원하다 박근혜 후보로 지지를 선회했던 50명의 중 9명(안→박 이탈자의 18.0%, 전체응답자의 0.8%)이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지지로 돌아섰다. 반면 지난 조사에서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하다 문재인 후보 지지로 흡수된 195명 중 92.8%인 181명이 이번 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 지지로 이어진 반면 13명(안→문 지지유지자의 7.2%, 전체응답자의 1.2%)가 문재인 후보 지지로부터 이탈했다(표1).

안철수 부동층 문재인 지지흡수 전망

그럼 이들의 남은 기간 표의 이동전망은 어떠할까? 역시 관심의 초점이 되는 안철수 부동층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여기서는 지난 대선 3차(10월 11-14일)조사 다자구도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312명 중 이번 대선 5차(12월 11-12일)조사 다자구도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로 돌아선 52명, 문재인 후보 지지로 복귀한 239명, 기타후보 및 미결정으로 돌아선 부동층 45명의 태도를 중심으로 비교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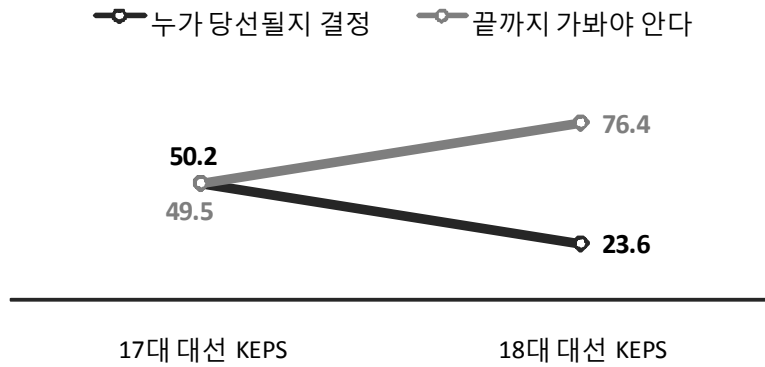
우선 안철수 전 후보 지지자 중 12월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로 복귀한 239명 의 경우 10월, 11월, 12월 시간이 지날수록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도 점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11월 안철수 전 후보 사퇴 직후 6.56점에서 이번 12월 조사에서는 7.33점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 전 후보 지지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로 돌아서거나 부동층으로 이탈한 층에서는 11월 말 안철수 전 후보 사퇴직후 시점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저점을 찍고 선거 일주일 시점에는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지만 지난 10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 단일화 시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을 뿐 아니라 5점을 넘지 못해 대체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호감 정서가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3). 이들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호감도(6.56)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도(4.96)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로 복귀하기는 힘들 것 같다. 부동층의 경우 박근혜 후보에 대한 호감도 점수(4.11)도 낮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평가(4.65)도 박근혜 후보보다는 높지만 두 후보에 대한 평가가 모두 중간인 5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이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대체로 정권심판론에 대해서는 공감의 컸다. 문재인 후보 지지로 흡수된 층에서는 89.6%가 동의했다. 박근혜 후보 지지로 이탈한 층과 부동층으로 이탈한 층에서도 각각 62.8%, 60.0%로 문재인 후보 지지유지층보다는 약하지만 정권심판론에 대한 공감도가 컸다. 투표율이나 안철수 전 후보의 문재인 후보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 이탈층과 안철수 전 후보 부동층에서 미온적이어서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 지지유지층에서 90.8%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하고 무려 95.0%가 안철수 전 후보의 문재인 후보 지지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박근혜 후보 지지로 이탈한 층에서는 적극적 투표의사는 76.9%로 비교적 높지만 안철수 전 후보의 문재인 후보 지원활동에 긍정적 평가는 36.5%로 낮았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안철수 전 후보 부동층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활동에 긍정적 평가가 과반에 못 미치는 40.9%에 불과했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사층 규모도 45.5%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높은 정권심판론은 문재인 후보 지지로 복귀할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토정서나 미온적인 투표 의사로 볼 때 이들이 얼마나 문재인 후보 지지로 복귀하고 투표장에 나설지 미지수며 이것이 이번 선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그림4).■

[그림 1] 선거판세에 대한 유권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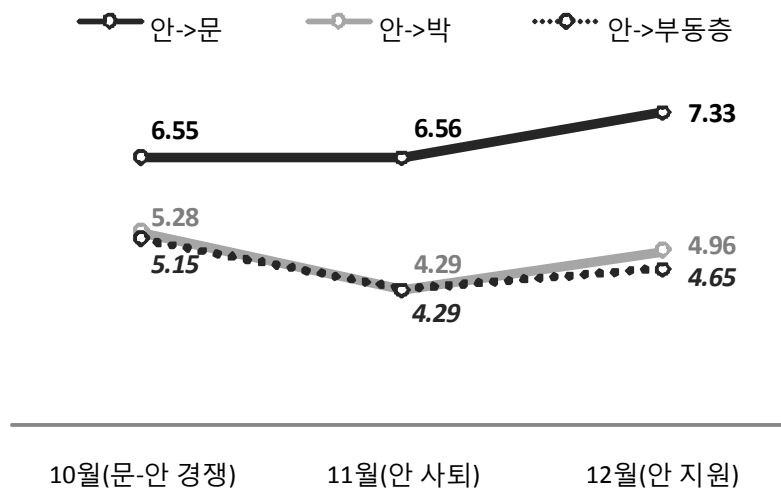
[그림 2] D-3주 ~ D-1주 사이의 표의 이동

11월 25-27일 D-3주 (안 사퇴 직후)		12월11일-12일 D-1주 (안 지지 이후)				
지지	규모		지지후보	3차조사 대비비율	전체 유권자 대비 비율	
박근혜	529명 1183명의 44.7%	→	박근혜	497명 (94.0%)	42.0%	지지유지
		→	문재인	23명 (4.3%)	1.9%	이탈
		→	다른 후보	4명 (0.8%)	0.3%	
		→	미결정	5명 (0.9%)	0.4%	
문재인	513명 1183명의 43.4%	→	박근혜	15명 (2.9%)	1.3%	이탈
		→	문재인	479명 (93.4%)	40.5%	지지유지
		→	다른 후보	6명 (1.2%)	0.5%	이탈
		→	미결정	13명 (1.1%)	1.1%	
미결정층	126명 1183명의 10.7%	→	박근혜	25명 (19.8%)	2.1%	이탈
		→	문재인	50명 (39.7%)	4.2%	
		→	다른 후보	2명 (1.6%)	0.2%	지지유지
		→	미결정	49명 (38.9%)	4.1%	
기타후보	15명 1183명의 1.3%	→	박근혜	2명 (13.3%)	0.2%	이탈
		→	문재인	8명 (53.3%)	0.7%	지지유지
		→	다른 후보	2명 (13.3%)	0.2%	
		→	미결정	3명 (20.0%)	0.3%	이탈

[표 1] 10월-11월 안철수 지지자 지지변화 유형별 12월 대선 지지후보(%)

10월(2차)→11월(3차) 안 전 후보 지지 변화		12월(4차)조사 대선지지			
		박근혜	문재인	기타/미결정총	전체
안→박	패널 수(명)	38	9	3	50
	2-3차 변화유형 기준(%)	76.0	18.0	6.0	100.0
	4차 다자대결 기준(%)	7.4	1.7	3.8	4.5
	계(%)	3.4	0.8	0.3	4.5
안→문	패널 수(명)	5	181	9	195
	2-3차 변화유형 기준(%)	2.6	92.8	4.5	100.0
	4차 다자대결 기준(%)	1.0	34.0	11.5	17.4
	계	0.4	16.1	0.8	17.4
안→기타	패널 수(명)	6	36	25	67
	2-3차 변화유형 기준(%)	9.0	53.7	37.3	100.0
	4차 다자대결 기준(%)	1.2	6.8	32.1	6.0
	계(%)	0.5	3.2	2.2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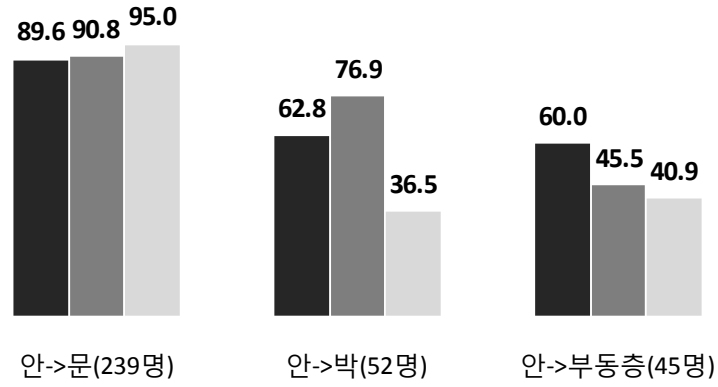
[그림 3] 10월(2차)-12월(4차) 안 지지변화유형별 문재인 호감도 변화



(0점 매우 싫음, 5점 중간, 10점 매우 좋음)

[그림 4] 10월(2차)-12월(4차) 안철수 전 후보 지지자 지지 변화별
정권심판론 동의/적극적 투표 의사층/안 문 지원 평가

■ 정권심판론 공감 ■ 적극적투표의사층 ■ 안의문 지원 긍정평가



(10월(2차) 안철수 지지자×12월(4차) 대선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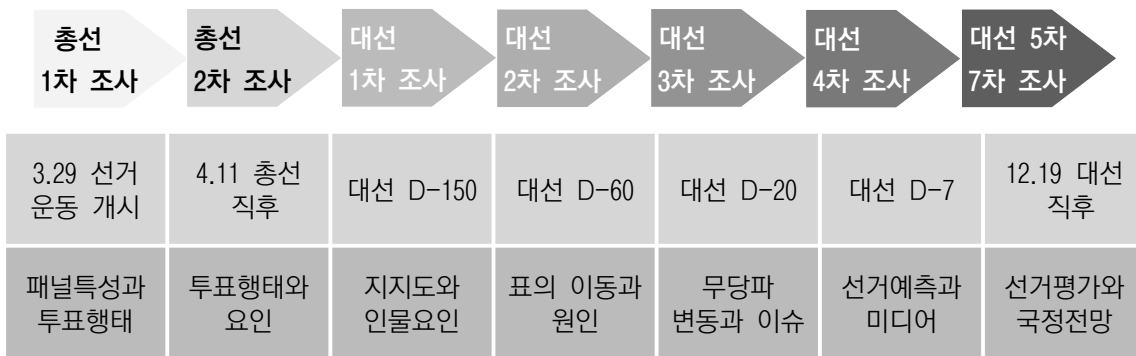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대선패널조사"

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 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AI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2 대선패널조사" 를 진행한다.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는 모두 7회(wave)를 진행한다.

〈패널조사의 진행과 주요 조사내용〉



EAI 2012 패널조사 연구팀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권혁용(고려대) · 김성태(고려대) · 김준석(동국대) · 박원호(서울대) · 박찬욱(서울대) · 서현진(성신여대) · 윤광일(숙명여대) · 이곤수(EAI) · 이우진(고려대) · 이현우(서강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장승진(국민대) · 정원철(EAI) · 정한울(EAI) ·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 오승호 ·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대선4차 패널조사 개요

조사일시	2012년 12월 11 - 12일 (2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 패널 1,308명
표본추출	지역 · 성 · 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학력/직업/자가소유 비율 반영)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2.7%
패널유지율	65.4% (최초 패널 2,000명 기준)